

보도시점 2026.9.30.(수) 11:00
< 10.1.(목) 조간 >

배포 2026.9.30.(수)

‘26년 산단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 결과 확정**- 노후 산단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 지원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출연사업’ 공모 결과 전남 무안, 경남 사천, 경북 경산, 전북 정읍, 강원 철원 등 8개 지역 산단을 선정하고, 국비 27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센터, 3개소) 산단을 청년이 찾고 꿈을 펼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복합문화와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센터 사업에 전남 무안군 청계농공단지, 경남 사천시 사남농공단지, 충남 아산시 아산테크노밸리를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1개소당 40억원)을 지원한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장, 2개소) 산단 내 휴·폐업공장 등을 재개발하여 창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주변시세 70% 이하로 산업입지를 제공하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에 경북 경산시 경산 1일반산단, 경남 거창군 정장 농공단지를 선정하고 국비 140억원(1개소당 7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3개소) 노후화된 개별 영세·중소기업 공장 내·외부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에 전북 정읍시 신태인·북면 농공단지, 정읍 2·3일반단지, 전남 영암군 대불 국가산단, 강원 철원군 김화 농공단지를 선정하고 국비 12억원(1개소당 4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본사업을 통하여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노후 산단 내 혁신·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산업단지를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상우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김승욱 (044-203-4402)